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반복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정월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1일 인천 스카이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5차대회 1라운드 12번홀에서 송민영이 벙커샷을 하고 있다. /KLPGA 제공

여고생 송민영 3언더 선두

시즌 9승 도전 신지에 2위

KLPGA KB 스타투어 1R

공부도 잘하는 국가대표 주장 송민영(18·대전국제고)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대회 가운데 가장 상금이 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5차대회에서 첫날 단독 선두에 나섰다. 송민영은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6천588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와 69타를 때려 2언더와 70타를 기록한 신지에(19·하이마트), 조영란(20·하이마트), 김현지(19·김영주) 등 2위 그룹을 1타 차로 따돌렸다.

년 9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장학생으로 입학이 확정되는 등 '공부하는 운동 선수'로 유명세를 탄 선수. 시즌 아홉번째 우승을 노리는 '자존' 신지에와 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된 송민영은 "아마추어 때 함께 경기를 자주 해 봤다. 긴장되거나 부담은 없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치겠다"고 말했다. 늘 첫날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신지에는 국내여자프로골프대회 사상 가장 긴 코스에서 찬 바람이 불어대는 가운데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 4개를 곁들여 무난하게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9승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최나연(20·SK텔레콤)이 2오버와 74타로 공동17위에 그쳤고 지은희(21·캐러웨이)는 4오버와 76타, 안선주(20·하이마트)는 6오버와 78타로 부진했다. /최재호기자 lion@

골프규칙 일부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자신이 친 볼 맞았을 때 2벌타→1벌타

비규정 클럽 경기때 실격→홀당 2벌타

골프 선수들에게는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골프규칙이 내년부터 일부 개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골프규칙을 제정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벌타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수가 친 볼이 실수로 자신이나 동반 플레이어, 캐디, 기타 장비에 맞았을 때 적용됐던 벌타 규정(19조2항). 지금까지 선수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을 잃게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벌타만 받는다. 2003년 마스터스대회 때 생애 첫 메

이저대회 우승을 노리던 제프 매거트(미국)는 최종 4라운드 3번홀(파4)에서 볼을 벙커에 빠뜨린 뒤 두번째 샷을 하다 벙커 턱을 맞고 튀어나온 볼이 몸에 맞는 바람에 2벌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트리플보기로 돌아온 매거트는 단독 선두를 달리다 리더보드 상위권에서 사라지는 불운을 겪었다. 또한 12조2항의 규정을 바꿔 볼이 벙커나 워터 해저드에 빠졌을 때 시벌을 위해 발타 없이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4조1항에 따라 선수가 규정에 맞지 않는 클럽을 갖고 경기에 나서기만 해도 실격을 당했지만 내년부터는 홀당 2벌타, 라운드당 최대 4벌타를 받는 것으로 완화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7 프로야구 결산 <하> KIA 최악의 해

2007시즌 KIA는 최악의 해를 보냈다. 시즌 초부터 부상선수가 속출했고, 선수단과 프런트는 엇박자를 냈다. 팬들도 패배의식에 젖은 KIA 선수단을 비난하며 범정소송까지 벌였다. 결국 시즌을 최하위로 마감한 KIA는 단장과 감독이 교체됐고, 코칭스태프 12명과 선수 14명도 옷을 벗었다. 구단 프런트도 책임을 비켜나갈 수 없었다. 6개팀이 4개팀으로 축소됐고, 6개 팀장 중 5명이 직위해제됐다.



주전 줄부상·구단 내분 '예고된 꼴찌'

'용병 농사'도 실패 옆친데 뒤흔겨 조직 대폭 개편...내년 새출발 기대

▲출발부터 백경막관엔 자포자기

올 시즌 KIA는 '특급 에이스' 그레이시어를 일본에 내주며 마운드의 공백이 생겼다. 옆친데 뒤흔겨 '토종 에이스' 김진우마저 컨디션 난조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원투 펀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강철민, 장문석 등도 부상으로 빠졌고, 지난 시즌 중간과 마무리를 오갔던 윤석민이 1선발로 배치되는 못지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 타선에선 이용규, 홍세완, 장성호, 이재주 등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이 시즌내내 이어졌다. 용병농사도 흑작이었다. 서튼과 에서튼이 시즌 초 부상으로 퇴출됐고, 대신 데러운 투수 로드리게스는 중간 계투로 나서 몇차례 출전만 뒤 짐을 썼다. 지난 5월 아쉽게 데러운 최희섭마저도 오자마자 부상을 입어 팀 전력에 막대한 피해만 줬다. KIA는 결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선수단은 패배의식에 젖어들었다. 지난달 25일 남해캠프에서 만난 최고참 이종범은 "올 시즌은 프런트, 선수, 코치진 등 3박자가 안 맞았다. 막판엔 선수들도 자포자기하는 분위기였고, 끈끈한 동료애도 사라졌었다"고 올 시즌을 자평했다.

▲털갈이한 호랑이 내년 시즌은

내년 시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우선 그동안 팀내 모든 업무를 지휘해온 최고참 팀장급 5명이 갑작스레 직위해제 되는 바람에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조직을 죽이는 병폐인 신임 운영진에 대한 '줄서기'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조직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역명을 요구한 KIA 구단 관계자는 "조직을 이끌던 상층부가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 보이지 않는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단편적인 예로 내년 시즌 전력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 자료인 FA(자유계약선수)명단에 최근에야 감독에게 보고되는 등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범현 신임 감독도 "팀 운영면에서 서툴고 어색한 부

■2007 정규시즌 팀별 성적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홀승패	원정승패	팀타율	팀방어율	승률	개암차
1	SK	126	73	48	5	39-21-3	34-27-2	0.264	3.24	0.603	-
2	두산	126	70	54	2	38-24-1	32-30-1	0.263	3.44	0.565	4.5
3	한화	126	67	57	2	34-28-1	33-29-1	0.254	3.54	0.540	7.5
4	삼성	126	62	60	4	35-27-1	27-33-3	0.254	3.71	0.508	11.5
5	LG	126	58	62	6	29-29-5	29-33-1	0.268	4.33	0.483	14.5
6	현대	126	56	69	1	29-34-0	27-35-1	0.271	4.41	0.448	19
7	롯데	126	55	68	3	30-32-1	25-36-2	0.270	4.12	0.447	19
8	KIA	126	51	74	1	27-36-0	24-38-1	0.257	4.49	0.408	24

분이 다소 있다"며 "올 겨울을 보내면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수단도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마운드는 '에이스' 윤석민이 양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내년 시즌 출장이 불투명하고, 미들맨 신용은은 군입대를 준비중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시즌 후반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방망이와 짧은 마운드다. 이용규-이현근-장성호-최희섭으로 이어지는 타선은 타 팀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마운드에선 양현종, 진민호, 오준혁, 문현정 등 젊은 투수진의 활약이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일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에 출전하는 한국야구대표팀이 잠실야구장에 소집돼 훈련을 하기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FA 이호준 KIA 복귀 하나



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은 SK 4번 타자 이호준(31·사진)의 친정팀 KIA 복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FA 자격 대상자를 일괄 발표한다. 새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김동주(두산), 이호준(SK), 조인성(LG), 이재주(KIA) 등 10명이다. 조운현(SK) 등 자격을 채취하거나 자격을 유지 중인 선수까지 합치면 모두 20명이다. 이번 FA시장의 불투명은 올해 SK의 4번 타자로 맹활약을 펼쳐 팀이 창단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데 큰 공을 세운 이호준이다. 이에 따라 장타 능력이 있는 그를 잡기 위해 친정 KIA와 SK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른손 장타자가 필요한 KIA의 공세가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야구 드림팀 "베이징 가자"

김경문호 올림픽 예선 대비 본격 합숙훈련

26일부터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한국 야구 부활을 이끌 김경문호가 1일 본격적인 합숙 훈련에 돌입했다. 김경문 감독, 선동열 코치 등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지난달 7일 발표된 대표팀 5차 엔트리에 33명 중 김병현(플로리다), 이승엽(요미우리), 이병규(주니치) 등 3명을 뺀 30명 선수 전원은 이날 오전 11시 합숙소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 집합, 상견례를 갖고 훈련 일정 등을 전달받았다. 김 감독은 "머칠 전까지는 (한국시리즈에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부터

는 베이징올림픽 티켓을 꼭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대만이 흠이라는 유리한 점 있으나 우리는 1차전(12월1일)에서 반드시 대만을 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본도 기량과 수준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나 단기간은 알 수 없다. 우리 팀에는 일본에 강한 선수들도 많다. 가장 중요한 대만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이 대만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김 감독은 "대만과 어려운 경기를 벌여왔는데 게임이 풀리지 않았을 뿐 우리가 실력이 뒤져서 진 건 아

니다. 단기전은 결과를 결코 알 수 없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김 감독은 또 "일본 투수들의 공을 우리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내에서 보여준 내 스타일 대신 이번 대회에서는 이기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김재박 LG 감독보다 번트를 더 딸 수도 있다"며 철저히 확률 높은 게임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표팀의 주장을 맡게된 박찬호는 "대표팀에 와보니 고참이 된 기분이다. 주장이라기보다 고참으로서 노력을 다할 것이고 주장 직책보다는 한 명의 선수로서 팀에 보탬이 되는 활약을 펼치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최태원·장재중 코치 영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까지 SK 와이번스에서 뛰었던 최태원(37·왼쪽) 코치를 주루 및 작전코치로, 장재중(36·오른쪽) 코치를 배터리 코치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